

[종합·해설]

10·25 재보선 '최악의 돈 선거' 되나

막판 금품살포 기승 고발된 것만 6건

상호 비방·흑색선전도... 후유증 우려

10·25 전남지역 재·보궐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사상 최악의 금품 선거로 일목지고 있다. 후보들 간 상호 비방과 흑색 선전도 난무하며 극도의 혼탁 양상을 보여 선거 후 심각한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해남·진도(국회의원)와 화순, 신안(군수) 등 3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과 관련 선관위 등에 적발된 현금 제공 사례는 23일까지 모두 6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남지역 22개 지역 시장·군수를 모두 뽑는 지

난 5·31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드러난 2건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목포경찰은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 지지자인 A씨가 22일 오후 신안군 압태면 B씨의 집을 찾아가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B씨와 B씨의 형, 어머니에게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3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는 신고를 받고 23일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신안군선관위는 역시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C씨가 22

일 신안군 자연면 D씨에게 현금 10만원이 담긴 봉투를 제공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화순군선관위는 화순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E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순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돕기 위해 유권자 3명에게 600만원을 건네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F씨를 긴급 체포했다.

지난 18일에는 신안군수 재선거와 관련 180만원 상당의 물품교환권을 구입해 유권자 54명에게 제공한 모 정당 운영위원장 H씨 등 3명이,

12일에는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희망경에서 6명에게 20만 원씩의 사례금을 준 모 정당 후보의 친척 I씨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상호 비방과 인신 공격성 폭로전도 난무하고 있다.

화순에서는 모 후보가 5·31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 고발 취하 조건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놓고 후보들간 연일 공방을 벌였으며, 해남에선 유력 후보의 여당 가입 여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유권자들은 이같은 혼탁 양상에 "재·보선 당선자마저 또 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후 광주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햇볕정책' 관련 오라카라 행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위정기자 jrwi@kwangju.co.kr

"햇볕정책 美와 협의하며 지속돼야"

한화갑 대표 '확실한 계승' 천명하되 '공조' 주장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3일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으로 미국 등 우방과의 협의 하에 지속돼야 한다"면서 "서독의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까지 이어갔듯 남북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사태 이후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오라카라하고 있으며 햇볕정책에 비판적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햇볕정책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책이자 민주당의 확고한 정책"이라며 진화를 나열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의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은 일관성이 있다"며

"다만, 시대상황에 따라 실현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오 이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논란이 된 "북한을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는 지난 19일 긴급의원 간담회 발언에 대해 "북한은 우리를 민족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옛날과 같이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며 "민주당은 단 한 번도 햇볕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여전히 "북한이 핵을 갖게 된 마당에 대북정책에 있어 우리의 입장을 관찰시켜야 하지만 안 할 때는 미국 등 우방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강조, 미국에 비판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DJ와는 약간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 긴급의원 간담회가 끝난 뒤 "한국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에서 미국과 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긴급의원 간담회 이후 당 안팎에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 홈페이지엔 '지지자들을 배신했다', '지도부는 퇴진하라'는 글이 하루 수십 건씩 올라왔으며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북지기자 jkpark@kwangju.co.kr

"北 죽음의 길로 들어서" 손학규 전 지사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23일

"(핵실험으로) 북한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을 거듭 비판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민심대장정을 마친 후 처음으로 사대론

사실에 옮긴,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손 전 지사는 "국가적 운

명이 걸린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눈치나 보고, 정치적 계산하는 사람은 결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면서 "표 계산이나 하고, 당론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정적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위정기자 tuim@kwangju.co.kr

10·25 재보선 현장

"금품살포 후보 투표로 심판"

○전남지역 재·보선 현장에서 잇따라 불거진 금품 살포와 관련 23일 각 당은 논평과 호소문을 통해 관련 후보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수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들이 막판 금품 살포를 통해 지지를 만회를 꾀하고 있다"며 검찰과 선관위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박양수 해남·진도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차려 "해남·진도와 신안, 화순에서 민주당의 돈봉투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투표를 통해 이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소 173곳·개표소 4곳 설치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3곳에서 설

치되는 10·25 재·보궐선거와 관련 173개의 투표소와 4개 개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해남·진도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소는 해남군 문화예술회관과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화순군수 선거는 화순군민회관, 신안군수 선거는 목포영흥고 유진기념관에서 각각 개표가 진행된다. 신속한 개표 진행을 위해 투표지분류기 15대가 투입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자정을 전후에 개표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섬지역인 신안군은 이튿날 새벽 1~2시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 선관위는 재보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모범 유권자 시상과 대형 마트 할인행사, 투표율과 연계한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투표참여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나라 전여옥 호남 지원 유세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과 황우여 사무총장이 24일 해남과 화순, 신안 등 전남지역 재·보궐선거를 잇따라 방문해 후보 지원 유세를 갖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건희 회장 부자 증인 채택 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23일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 부자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표결로 부결 처리했다. 또 현대차 정몽규 회장과 부자 등 나머지 5인에 대한 증인 채택도 함께 부결했다.

이날 표결은 대전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직후 이뤄졌으며 재직위원 16명 중 14명의 의원이 참석, 증인 채택에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임종인, 이상민, 선병철(이상 열린우리당), 노회찬(민노당)의원이 찬성표를, 박세환, 주성영, 이주영(이상 한나라당), 김동철, 이종걸(이상 열린우리당), 조순형(민주당)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06년 10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3,200,000,000원을 1,32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상속 한정승인공고
방 이연기(1964년 6월 24일생)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언에 대한 공고...

분할합병공고
현대이비에스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흥익전력(이하 "을"이라 한다)은...

비밀무용자산 매각공고
위인 자사에서 보유중인 비무용자산 매각을 아래와 같이 원천 공개합니다.

건물임대
1층 225평, 2층 225평, 3층 225평, 4층 135평
대지 720평, 주차 80대, 하남동진로 80m 도로변

무담보 무보증
가계당좌어음수표차량급전
연락처 010-4408-8911

光州日報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 운전·모집, 초빙·영양, 모인, 사설공용, 매입·부동산, 매매·임대, 전세·분양

산행안내
이대도서관의 먼산 비룡상 찰떡, 최원배씨 10월25일 (수) 07시30분 최정아출발(봉 아방일,문예회관경우출발)

경유출발 T.011-645-7786
▲광주전남신문회 내정신 배향장 단풍산행 10월29일 (일) 07시 광주역 출발

▲모두투어(주) 등양 중국 황 산-권도호 3박4일 11월매주 (주,토) 남양(대전광역시남양) 대유카레·광주신마을빌딩

전남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전남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일정
일정전형별 원서 접수 전형 일정 합격자 발표 (예정) 등록기간

재광주광양향우회 향우 공동체 화합의 한마당
필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고향을 떠나 온 뒤 잠시나마 잊고 지내던 향우들과의 정감을 나눌 수 있는 '향우 공동체 화합의 한마당'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